

임기영·정용운 이어 박진태도 ‘난세의 영웅’ 될까



박진태 투수



KIA 타이거즈의 대졸 루키 박진태(23)가 ‘난세의 영웅’을 꿈꾼다.

1위 ‘호랑이 군단’이 롯데 자이언츠와의 사직 원정 3연전에 이어 LG 트윈스와 주말 홈 3연전을 치른다.

주어진 과제는 ‘1위 수성’. 2위 NC 다이노스가 5연승을 내달리면서 반 경기 차 밖에서 호시탐탐 선두 자리를 넘보고 있다.

살얼음 승부를 앞둔 KIA의 시선은 마운드에 쏠린다.

KIA는 우천취소로 한 경기 쉬어갔던 지난주 3승 2패를 기록하며 NC의 추격을 간신히 따돌렸다. 믿음직한 헛타가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올 시즌 가장 먼저 9승을 찍은 가운데, 남은 2승은 마운드의 ‘셋발’들이 책임졌다.

지난 7일 임기영이 친정인 한화 이글스를 9이닝 무실점으로 처리하면서 시즌 두 번째 완봉승이라는 업적을 이뤘고, 씩씩이 3연패 위기에 직면했던 지난 11일 넥센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는 좌완 정용운이 7이닝 2실점(1자책)의 ‘인생투’로 승리를 보냈다.

하지만 믿었던 좌완 듀오 양현종과 팻단이 일찍 무너지면서 아쉬운 2패가 기록됐다.

새로 시작된 한 주는 선발진 계산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전망이다. KIA 마운드에 돌발 변수가 있다. 임기영이 완봉

KIA 오늘 부산 원정… 롯데 박세웅과 선발 대결

기존 선발투수진 붕괴… 팀 1위 수성에 관심

2017 정규리그 순위		(12일 현재)					
순위	팀명	승	무	패	승률	게임차	연속
1	KIA	39	0	22	0.639	0.0	1승
2	NC	38	1	22	0.633	0.5	5승
3	두산	32	1	26	0.552	5.5	2패
4	LG	31	0	28	0.525	7.0	1승
5	SK	31	1	29	0.517	7.5	1패
6	넥센	30	1	30	0.500	8.5	1패
7	롯데	29	0	31	0.483	9.5	2승
8	한화	24	0	36	0.400	14.5	1패
9	kt	24	0	37	0.393	15.0	6패
10	삼성	21	2	38	0.356	17.0	1승

승을 거둔 다음 날 페널티로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다행히 지난주는 우천 취소로 5경기만 치르게 되면서 원래 선발진 5명이 순서대로 마운드에 올랐다. 그러나 이번 주에는 일단 임기영을 빼고 6경기의 선발진을 구성해야 한다.

‘사이드암’ 박진태가 기회를 얻어 한 주 스타트를 끊는다. 대졸 루키인 박진태는 지난 10일 팻단이 3.2이닝 6실점으로 일찍 물러난 뒤 KIA의 두 번째 투수로 나와 3.1이닝을 무실점으로 책임졌다. 프로 데뷔 세 번째 경기에서 넥센의 뜨거운 바람을 잠재운 박진태는 13일은 처음부터 마운드를 책임지게 됐다.

이번에도 믿음 속 ‘난세의 영웅’이 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즌 초반 선발진 계산이 틀어진 위기 상황에서 임기영이라는 스타가 탄생했다. 우천 취소라는 악재 속에서도 ‘임시 선발’로 기회를 얻은 임기영은 1.82의 평균자책점으로 두 차례 완봉승 포함 7승을 수확하며 1위 질주의 중심에 섰다.

그리고 김진우의 부족했던 피칭 속 다시 시작된 선발 고민에서는 정용운이라는 뜻밖의 수확이 있었다. 정용운은 첫 선발 등판이었던 지난 4일 삼성 윤성환을 상대로 팀의 씩씩이 패를 막았고, 11일에는 더 뛰어난 기록과 함께 넥센의 연승을 저지했다.

믿음에 응답한 임기영과 정용운이 이끌고 지진 1위. 또 다른 ‘깜짝 스타’를 꿈꾸는 박진태에게는 쉽지 않은 도전이기는 하다.

생애 첫 선발 등판의 상대가 올 시즌 리그를 대표하는 투수로 부쩍 성장한 롯데의 ‘에이스’ 박세웅(22)이다. 박세웅은 올 시즌 11경기에 나와 1.73의 평균자책점을 찍으며 7승2패를 기록하고 있다. 올 시즌 KIA와는 첫 만남이다.

박진태가 팀의 위기를 자신의 기회로 만들며 웃을 수 있을지, 사직 마운드에 눈길이 쏠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최형우, 올스타전 팬투표 중간집계 최다득표 1위

넥센 이정후 나눔올스타 2위

KIA 8명 포지션별 1위

KIA 타이거즈의 ‘4번 타자’ 최형우가 올스타전 팬 투표 1차 중간집계 결과 최다 득표 1위를 차지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2일 2017 타이거즈 KBO 올스타전 ‘베스트12’ 선정 팬 투표 1차 중간집계를 발표했다. 나눔올스타 외야수 부문의 최형우는 46만2153표로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 2위는 44만5577표를 얻은 드림 올스타 3루수 부문의 최정이다.

이중범 MBC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의 아들이자 올 시즌 강력한 신인왕 후보인

이정후(넥센)는 35만4309표를 가져가면서 최형우에 이어 나눔 올스타 외야수 부문 2위에 올랐다.

KIA는 올스타 투표에서도 1위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 최형우와 함께 로저 배나디나(외야수), 양현종(선발투수), 김윤동(중간투수), 김민식(포수), 안지홍(2루수), 이범호(3루수), 김선빈(유격수) 등 8명의 KIA 선수가 득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KIA 선수를 뺀 나머지 나눔올스타 자리는 임정민(마무리·NC)과 로사리오(1루수), 김태균(지명타자·이상 한화)이 차지했다. 나눔 올스타는 KIA, NC, 넥센, LG, 한화 선수로 이뤄진다.

두산, SK, 롯데, 삼성, kt 선수들로 구성된 드림 올스타에서는 ‘디펜딩 챔피언’

두산의 강세다. 두산에서는 니퍼트(선발투수), 이현승(중간투수), 양의지(포수), 최주환(2루수), 김재호(유격수) 등 5명이 포지션별 1위에 올랐다.

한편 지난 5일 시작된 팬 투표를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와 다음(www.daum.net),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KBO 앱과 KBO STATS 앱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팬 투표 1차 중간집계(11일 오후 4시 기준) 유효 투표수는 80만240표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70만5345표보다 약 13.8% 상승한 수치다.

팬 투표수와 선수단 투표수 점수를 70% 대 30% 비율로 합산한 ‘베스트 12’ 최종명단은 오는 7월 3일 공개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 선발진 잔류 ‘빨간불’

신시내티온 4이닝 홈런 3개 내줘 4실점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신시내티 레즈의 강타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조기 강판당해 선발진 잔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류현진은 12일 열린 미국프로야구 2017 메이저리그 신시내티와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해 4이닝 동안 홈런 3개를 포함한 6안타를 내주고 4실점 한 채 일찌감치 마운드에서 물러났다. 사구는 하나도 없었고, 삼진은 5개를 빼앗겼다. 투구 수는 68개였다.

류현진은 다저스가 8회 말 코리 시거의 만루홈런으로 9-7 극적인 역전승을 거둬 패전도 면했다.

류현진이 메이저리그 한 경기에서 홈런 3개를 맞은 것은 4월 19일 콜로라도 로키스와 홈 경기에 이은 두 번째로 올 시즌 피홈런은 12개로 늘었다.

시즌 초의 부진 탓에 빅리그 데뷔 이후 처음으로 불펜으로 자리를 옮겨야 했던 류현진은 알렉스 우드가 10일짜리 부상자명단에 오르며 다시 선발로 마운드에 오를 기회를 잡았다.

그러자 1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전에서 6이닝 1실점으로 막고, 6일에는 리그 최강 타선의 워싱턴 내셔널스를 상대로 7이닝 4실점으로 호조를 이어갔다. 특히 워싱턴전에서는 구속(시속 151km)과 투구 횟수(7이닝, 투구 수 102구) 모두 2015년 수송 이후 ‘베스트’를 기록했다.

하지만 내셔널리그 홈런·장타율 2위 신시내티 타선에 일격을 당해 다시 선발진 잔류를 장담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류현진의 속구 구속은 지난 워싱턴전에 비해 눈에 띄게 줄었다. 류현진의 이날 최고 구속은 90.2마일(약 145km)에 불과했다. 이에 빠른 볼 비중을 줄이고 변화구 위주로 상대와 대결하려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는 지난해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수상자인 맥스 셔저(워싱턴 내셔널스)를 홈런 포함 2안타로 두들기고 5-1 승리를 이끌었다.

추신수는 워싱턴 내셔널스와 벌인 메이저리그 인터리그 방문경기에서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 3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2득점 1볼넷으로 활약했다.

추신수는 1회 초 선두타자로 나와 셔저를 상대로 좌전 안타를 치고 나갔다. 그러나 후속타가 터지지 않아 홈에 들어오지는 못했다.

0-1로 밀린 3회 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는 셔저와 2볼-2스트라이크로 맞서다가 시속 158km 포심 패스트볼을 받아쳐 가운데 담을 넘기는 동점 솔로 홈런을 날렸다. 추신수의 시즌 9호 홈런으로 이를 연속 워싱턴을 상대로 홈런포를 가동했다.

추신수는 8회초에는 ‘빅 이닝’을 만드는 불넷을 골라내며 5-1 승리에 발판을 놓았다. /연합뉴스



무등중, 광주야구인 동우회장기 우승

곽연호 최우수선수상

무등중이 제22회 광주야구인 동우회장기 중학교 야구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무등중은 최근 무등경기장에서 끝난 이번 대회에서 3전 전승을 거두며 우승팀이 됐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해 우승팀인 동성고를 포함해 4개 팀이 참가했으며, 리그전으로 우승팀이 가려졌다.

무등중은 첫 경기에서 만난 총장중을 1-8, 콜드게임승으로 꺾은 뒤 동성중을 13-9로 제압했다. 무등중은 마지막 날 진흥중과의 경기는 11-7로 이기면서 3승으로 우승을 확정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전인지 또 아쉬운 준우승

LPGA 매뉴라이프 연장 접전 끝 공동 2위

올해 준우승만 4차례

쥘타누간 우승 세계 1위 등극

전인지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매뉴라이프 클래식(총상금 170만 달러)에서 연장 접전 끝에 공동 2위에 올랐다.

전인지는 12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케임브리지의 휘슬베어 골프장(파72·6613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2개로 2언더파 70타를 쳤다.

최종합계 17언더파 271타를 기록한 전인지는 에리아 쥘타누간(태국), 렉시 토프스(미국)와 함께 연장전에 들어갔다.

18번 홀(파4)에서 열린 연장 첫 번째 홀에서 쥘타누간이 약 7m 가까운 먼거리 버디 퍼트에 성공하면서 그대로 승부가 결정됐다. 쥘타누간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세계랭킹 1위 등극을 자축했다.

쥘타누간은 이 대회 전까지 리더아

고(뉴질랜드)에게 랭킹 포인트 0.01점 차로 뒤진 2위였다. 이번 대회에 리더아 고가 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쥘타누간이 새로운 세계 1위가 됐다. 리더아 고는 2015년 10월부터 85주 연속 세계 1위를 지켜왔다.

지난해 8월 캐나다오픈 이후 투어 통산 6승째를 거둔 쥘타누간은 우승 상금 25만5000달러(약 2억8000만원)를 받아 상금 랭킹에서도 1위가 됐다.

쥘타누간이 95만 4279달러, 이번 대회에 불참한 유소연은 91만 2820달러다.

전인지는 올해만 준우승을 네 차례 기록했다. 3월 파운더스컵과 4월 롯데 챔피언십에서 공동 2위에 올랐고 지난달 킹스밀 챔피언십에서는 단독 2위를 차지했다.

올해 LPGA 투어는 14번째 대회까지 매년 다른 우승자를 배출하며 시즌 2승 선수의 탄생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연합뉴스